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350

2015. 6. 7

2015년 주님의교회 표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오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 2:20a

오늘의 주요기사

2. 사명 특집
3. 주치안내
4. 2015 전교인 수련회
5. 목회 칼럼
6. 교회 단신

6/15(월) 정기당회

6/21(주) 애국주일

6/24(수) 겨자씨 인도자 종강,
창립주일 기념음악회
(임마누엘 찬양대)

6/28(주) 창립주일(27주년)

7/23(목)~25(토) 전교인 수련회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ttv.org

주님의교회



정신학원 교정의 김마리아 흉상. 주님의교회가 사용하는 김마리아회관은 그이를 기려 명명한 것이다.

김마리아, 믿음과 애국의 표상

유월은 호국의 달, 믿음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몸 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 보는 달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 말로, 사회적 신분과 학식, 경제와 권력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헌신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땅에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일 터, 하나님 아들의 권좌를 포기하고 낮은 곳에 내려와 빈자, 세리, 죄인의 친구가 되었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고난을 감수했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낮은 이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애국을 빌어 자기를 드러내는 목소리는 높되, 무명의 헌신은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 정신학원 교정에서 김마리아를 새삼 발견한다.

김마리아,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다

지난 3월 1일, KBS 1TV에서는 3.1절 특집으로 <김마리아,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다>편을 방영했다. 그 주인공은 도산 안창호로부터 "그 같은 여성 동지가 10명만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독립됐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마리아 (1892~1944)였다.

"조선 사람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यो. 남자가 활동하는데 여자가 못할 이유가 있소?" 1919년 3월 5일, 정신여학교 기숙사에서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 김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진 고문을 받았다. 그이는 6개월에 걸친 수감생활과 고문

끝에 출감한 후에도 독립운동과 여성운동의 일선으로 바로 복귀하여, 1919년 9월 19일 모교인 정신여학교에서 20여명의 여성 지도자들을 모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결성했다. "옛말에 나라 사랑하기를 내 집 사랑하듯 하라 하였거니와, 국민 모두가 제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라를 보존할 수 없으니, 우리 부인들도 국민 중의 한 분자다. 빼앗긴 인권을 찾고 빼앗긴 국권을 회복할 최대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 부인들에게는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서처럼, 전국적인 항일여성조직으로 확대된 애국부인회는 국내 각지에서 독립정신을 고취했고,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내며 구국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해 11월 다시 투옥되었던 그이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6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 임시정부 의정원 최초 여성위원으로 뽑혔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여성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며 독립 활동을 전개했다.

독립운동과 여성운동의 본질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은 선각자

김마리아는 1892년 6월 18일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소래마을 대지주의 막내로 태어났다.

>3면에 계속

2015년 특집 | 사명과 함께 하는 삶

행함으로 반석에 세우는 믿음

그 사무실의 출입문을 들어서자 천장이 낮은 조출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거의 시간마다 약속이 잡혀 있는 바쁜 일정의 한 귀퉁이를 열어 인터뷰를 허락한 문광순 집사가 때맞추어 사무실로 들어왔다. 크지 않은 키에 선한 눈빛이 인상적이어서 일흔 셋의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지금 하고 있는 ‘참 행복 나눔 운동’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드러내려 하지 않아 기자로서는 오히려 힘든 인터뷰 가운데에서, 그이의 소박하나 진지한 꿈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모태신앙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화성 근처가 고향이었는데, 혼자 믿음을 가졌던 어머니가 온 가족을 전도했고, 곧 친정 식구들도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과학 기술 쪽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직업이어서 꽤 바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이는 한국계면공학연구소의 소장이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종신회원이자 이사이다. 분명한 것

은 그이가 이 나라에서 알아주는 학계의 원로라는 사실이다. 그이는 1980년대 캐나다에서, 오타와 한인교회의 설립에 앞장섰고, 이후 거의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았다.

주님의교회에 다니신 지도 꽤 오래 되셨는데요.

“주님의교회에 나온 건 과기부 초청으로 귀국했던 1991년부터입니다. 캐나다에서 귀국한 뒤, 목사님 말씀이 좋다는 소문에 YMCA 건물에 있던 시절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일은 하나만 하자, 그리고 교회 직분은 말지 말고 사회에서 봉사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래서 주일 아침 제일 빠른 1부 찬양대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안에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 그분들이 맡으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신 몸 담고 있던 연구소를 통해서 섬기는 일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이의 이런 막연한 생각이 어느 날, 좀 더 구체적인 명제로 다가왔다. 늘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공부하면서도, 도대체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던 차에, “믿음의 정의는 실천이다”라는 생각이 들



었던 것. 모두들 아는 것은 많이 알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사회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결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늦은 나이에 찾은 보람

“그러다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참 행복 나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정신을 사회에서 실천하되, ‘예수님’이라는 말만 빼어 종교적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산상수훈에도 있지만, 예수님도 실천으로 행할 때에 비로소 반

석 위에 믿음을 세울 수 있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가르침의 결론인 것이지요.”

이 모임에는 많은 사회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여했고, 그이는 참여한 인사들 가운데 건물을 가진 회원이 제공한 작은 사무실에서 총괄이사를 맡아 살림을 맡기로 했다. 직책은 거창하지만, 이 작은 사무실에는 방 두 개와 책상 몇 개, 그리고 상근 직원 하나가 있을 뿐. 그럼에도 그이는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단히 열중하는 모습이었고, 그 자체로 그이의 소박한 사명감은 아름다웠다.

함글함글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75

聖幕 内部配置 (성막 내부배치)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 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 궤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출애굽기 26장 33~35절)

配置(배치)의 名稱(명칭)

至聖所(지성소)의 贖罪所(속죄소)와 揮帳(휘장)으로 구분된 聖所(성소)가 있다.

聖所(성소, holy place)의 聖經的(성경적) 聖經的(의미)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이며 성전(temple) 혹은 예배의처소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총을 행사하시는 영역 곧 온 세상을 지칭하기도 한다. 無所不在(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임하시고 어느 곳에나 役事(역사)하시기 때문이다.

文字的(문자적)意味(의미)

★至(이를 지, 지극할 지): 날아가는 화살을 표현한 一(한 일)과 크다, 멀다는 뜻을 지닌 亼(사사 사)와 흠이나 땅을 뜻하는 土(흙 토, 땅 토)를 결합하여 ‘쏟 화살이 멀리까지 날아가

다 땅에 떨어져 이른다. 이처럼 목표에 이르려면 정성과 노력이 지극해야 한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聖(성인 성, 거룩할 성): 들음의 상징인 耳(귀 이)와 나타냄을 뜻하는 見(드릴 정)을 결합하여 ‘남의 말을 먼저 듣고 충분히 정리하여 자기 뜻을 나타내는 자가 성인이다. 이러한 성인의 언행이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所(바 소. 곳 소): 집이나 창문을 뜻하는 戶(집 호, 지게 호)와 작은 도끼의 뜻을 지닌 斤(도끼 근. 근 근)의 합자로 ‘집의 문밖에서 도끼질 소리가 들리는바 장작 패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졌다.

함글함글

섬기는 손 20



아버이날 사랑나무 아이들이 부모님께 달아드릴 카네이션 만드는 섬김의 손
사랑나무에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헌신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글함글

성숙한 교인의 차량 운행

주님의 교회에는 한 여름 따가운 햇볕과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 사고 없이 원활한 차량의 흐름을 도와주는 주차안내부가 있다. 부장과 총무를 비롯 봉사자 약35명이 예배 시 주요지점(25개소)에서 하루 종일 봉사를 하고 있다. 새로 부임한 부장 신광이 집사를 만나 예배 때마다 오고가는 많은 차량의 불편을 없애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들었다.

첫째, 교회의 정문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행하고 각종 차량들이 운행함으로 신호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봉사자의 수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통행의 우선순위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꼭 켜도록 한다. 계획된 시간에 입·출차를 하지 못해 기다릴 때에는 경음기소리나 고성으로 불평하지 않고 기다린다.

둘째, 후문은 주일에만 열려 나가는 차는 허용되지 않고 들어오는 차만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의 속도를 줄여 서행하여야 하며, 특히 건널목 봉사자의 수신호를 꼭 지켜 보행자(성도들)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운동장 주차는 들어오는 차보다 예배 후 나가는 차가 더 혼잡하다. 운동장 통로 주차 시에는 차의 타이어 정렬상태와 기아의 중립상태를 확인하고 꼭 연락처를 남겨야 하며 예배가 끝났을 때는 신속히 차를 옮겨 주어야 한다. 특히 운동장에 유소

년 축구 수업이 있을 때는 100m 계주장에 주차 공간이 제한됨을 알아야 한다. 중앙통로는 일방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어떤 이유든 주·정차를 할 수 없고, 비상시 긴급구난 및 소방 차량의 통로로 이용되어야 한다.

넷째, 성전 주변 주차장에서는 반드시 전면 주차로 주차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이곳은 장애인, 교역자, 학교장을 우선으로 배려하고 차량의 방향전환을 쉽게 하기 위해 주차 제한 구역이 있다. 특히, 장애인 주차지역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성전 좌측 코너 학생들의 자전거 주차장 앞에는 주차를 금지하며 건널목과 통로에서는 봉사자의 안내 없이 주차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학교 본관 앞 주차 시에는 좌우측에 일렬주차를 하고 일방통행(시계 반대 방향)으로 주행한다. 교직원들이 이동하는 출입구(정문,후문)와 보도 블럭 위, 세면장 주변에는 주차하지 않는다.

여섯째, 학교 도로변 주차는 모두 불법주차로 딱지를 떼고 있으나 정신학원과 뚝방길 사이에 있는 이면도로인 해병대 주차장에 약 20여대를 7시~10시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 외 우성 주변도로나 학교 및 운동장 뒷길, 뚝방 주차는 전부 불법 주차로 범칙금을 내거나 견인을 해가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곱째, 우천 시나 운동장에서 행사가 진행될 때에는 교회 주차공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때 교회 주차는 먼저 온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어



주차안내부의 어느 비오는 날.

떤 경우에도 주차 공간을 비워두지 못하므로 종합운동장 주차장 등 인접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여덟째, 교회 행사나 학교 행사 시 또는 예배가 늦게 끝날 때 정문에서 봉사자가 들어오는차를 통제하고 “진입이 불가합니다” “만차입니다” 또는 “늦게오세요”라고 안내할 경우가 있다. 이때는 빨리 정문을 벗어나야 한다. 정문을 비워 주어야 나가는 차가 막히지 않고 여유 공간이 생겨 주차도 가능하다.

아홉째,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차량 운행시 준수사항이다.

- ① 성전 내 서행 5Km/H 이내, 급제동과 경음기 사용 금지
- ② 운행시 전화통화, 음식섭취삼가기
- ③ 운행길에서는 사람이 우선이며 인도와 건널목에서 노약자발견 시 일단 정지 후 통행하기
- ④ 차내 귀중품과 동물 두고 주차 금지
- ⑤ 인접 차와 접촉 사고 시 연락하기
- ⑥ 성전 내, 정문 통행 규정을 지키고 방향 지시등 꼭 켜기

- ⑦ 전 성도 차량스티커 부착 및 연락처 적어놓기
- ⑧ 우천 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 ⑨ 운행 간, 주·정차 시 봉사자의 안내 따르기
- ⑩ 혼잡지역에서 인내하고 순서 기다리기

주님의 교회 성도는 모두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지체이다. 성도들 모두에게 교회 시설이 충분히 활용되어지면 좋겠지만 제한된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일정한 원칙과 규칙을 지켜야 안전하고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할 수 있다. 봉사자들이 당부하는 안전 수칙을 꼭 지키며 아직 미등록 차량이거나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는 주차 안내부와 교회 행정실에서 발급받아 운전자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면 된다. 주차 안내부에서는 또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사역할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함글함글

> 1면에서

이 지역은 한글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서상륜·서경조 형제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소래교회)가 설립된 곳이었다. 1910년 정신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마리아는 광주 수피아여학교를 거쳐 정신여학교 수학교사로 부임했다. 마리아가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루이스 교장의 추천으로 일

본 유학을 떠난 후였다. 졸업을 눈앞에 둔 마리아는 독립운동을 국내로 확대시키기 위해 독립선언문을 기모노의 허리띠에 숨겨 1919년 2월 중순 귀국했는데, 3.1 운동이 일어나자 바로 검거되었던 것이다. 미국으로 간 그녀는 10여 년간 시카고대, 콜롬비아대, 뉴욕신학원 등에서 사회학, 교육행정학, 종교교육학을 공부했으며, 여성독립운동단체인 근화회(槿花會)를 조직, 민족정신

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했다. 1932년 7월, 귀국한 후, 원산의 마르다월순여자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했으며, 1934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마리아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통해 조국애와 민족애를 심어 주고 하나님에 예배하신 미래의 좋은 날을 바라보게 했다. 일제가 모든 공식적인 모임에서 국민의례와 신사참배를 강요하

자, 그이가 이끄는 여전도회는 공식적 모임을 회피함으로써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결국, 오랜 감옥생활에서 얻어진 병으로 조국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3월, 52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그녀는 독립운동과 여성운동의 본질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은 선각자였으며, 헌신을 통해 이를 실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한 표상이었다.

함글함글

파송교회 탐방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는 길가에 교회

그동안 많은 목회자가 주님의교회에서 사역한 후 파송되었습니다. 함줄함울에서는 주님의교회에서 파송되거나 거쳐간 목회자들의 사역지를 방문하여, 서로 소식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려 합니다. 그 첫번째로, 길가에교회 이인호 목사를 만났습니다.

교회이름이 특이한데요. 길가에교회는 말 그대로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함,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함, 목적으로 향하는 길의 쉼터,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길가에교회는 2005년 12월 11일 남양주시 도농동 동화중,고등학교 여호수아홀에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재단 이사장이던 유경화 선생이 학교 강당(체육관)을 신축하면서 정신학원과 함께하는 주님의교회 모델이 너무 좋다고 주님의교회에 개척 의뢰를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교회가 강남YWCA에 있을 때 전도사와 부목사로 6년 임기를 마쳤고 이후 영국에 유학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섬기던 중이었습니다. 약 30명이 함께 파송 받았는데 창립 1주년 예배를 드릴 때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으로 늘어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정체 없이 조금씩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는 480여 명이 섬깁니다. 길가에교회는 현재 동화중학교 교사의 1층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체육관인 여호수아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학교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아주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전적으

로 교회를 믿고 지원해주시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청소년 전담 사역자와 사역팀이 있어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따, 폭력, 컴퓨터중독 등 여러 청소년 문제를 그룹상담과 토론 활동으로 학교와 교회가 함께 해결해 가고 있지요. 작년에는 온라인상의 기부금을 모아 좋은 일에 쓰는 일을 시작으로 사회기여활동을 하려는 학생들이 ‘콩나물’이라는 비영리법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화요일은 국수 먹는 날’이라고 쓴 안내문을 봤습니다. 누구나 와서 국수를 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지역의 어르신, 다문화 가정, 노숙자 등 약 350명 정도가 와서 드십니다. 딱히 전도 목적이라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국수 한 그릇으로라도 전하고 싶어 서입니다. 근처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분을 그 아파트 교인이 모시고 와서 국수를 대접했는데, 이분이 체장암에 걸려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교회 국수는 잘 드십니다. 이분이 못 오는 날에는 교인분이 국수를 포장해서 집까지 갖다드리기도 했는데 얼마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역도 많이 하시겠습니까.
“이웃사역을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2시 30분에는 예배를 대신하여 지역봉사에 나섭니다. 거리 청소를 하거나 지역 독거노인을 방문하거나 그때그때 우리 이웃에 관심을 갖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국수먹는날도 그런 취지이고,또 교회 바로 앞이 택시 승강장이라 늘 여러 대의 택시가 줄서있습니다. 교회 문은 바로 길을 향해 나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부담 없이 들어와 화장실도 이용하고 아직 100원인 교회 자판기 커피도 이용하며 쉬다 갑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 있다면?
각계각층에 리더를 많이 세웠으면 합니다. 청소년사역과도 연계가 되는데, 다니엘과 요셉같은 리더가 많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장소의 환경은 어떤가요?
주일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여호수아홀은 체육관이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에는 바닥위에 자리를 깔고 의자를 배치하는 일을 하고, 주일에는 모든 예배를 마치면 집기를 치우고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소리 울림과 난방의 어



길가에교회 이인호 목사

려움이 있는데 겨울에 교회 분들은 알아서 단단히 입고 오지만 처음 오는 분들은 추위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교정 안쪽에 400석 규모의 시청각실을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어서 완공되면 예배장소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으로 사용하는 중학교건물 1층엔 소예배실이 있어 새벽기도와 수요예배 등에 사용합니다.

처음 개척할 때 교실로 사용되던 곳을 교회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하는 것을 주님의교회에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예배가 열려있고 일꾼이 많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주변에 택지개발로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될 예정이라 곧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줄함울

2015년 전교인 수련회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

2015년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오는 7월 23일에서 25일까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다. 2011년 충주호에서 열렸던 전교인 수련회 이후, 전교인이 동시에 참여하는 수련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으로 오는 과정을 형상화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날은 “애굽을 떠나”(출발과 이동), “홍해바다 앞에서”(개회 예배), “광야 체험”(어울림 한마당),

“시내산 언약예배”(저녁 집회), “와디람 광야의 어느 여름밤”(챔버 공연)으로 마치고, 둘째날은 “지파들이 연합하여”(전교구 아침경건회), “사사와의 동행”(특강), “메시아를 대망하며”(가족 레저 활동),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한 도전”(교구 발표회), “메시아의 영광”(캠프파이어)로 이어진다. 마지막날은 “부활의 아침”(교구별 아침경건회),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순례자의 길, 폐회예배), “사명과 함께 세상 속으로”(출발 및 이동)으로 마무리된다.



전교인수련회가 열릴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청소년과 어린이분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의 경우 “하나님 나라를 부탁해!”라

는 소주제로 진행되며, 어린이는 “바이블 어드벤처”로 성경의 흐름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급학교의 방학 날짜가 일정하지 않아 수련회 날짜와 겹칠 경우도 있어, 다양한 보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회비는 성인 3만원, 부부 5만원, 어린이/청소년/청년은 1만원이며, 6월 7일부터 1차 접수가 시작된다. 함줄함울

목회 칼럼

많은 것 보고 경험한 기회

지난 4.12일부터 약 2주간의 일정으로 담임목사님과 함께 미국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부목사들 전체가 매월 일정금액을 모아서, 연차에 따라 4명 정도 다녀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서부의 시애틀과 LA, 동부의 뉴욕과 워싱턴, 알래스카와 그랜드 캐년 등 미국 곳곳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알래스카와 그랜드 캐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이 흉내 낼 수 없는 그분의 솜씨를 느낄 수 있어서도 좋았지만, 특히 좋았던 것은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회들, 독립교단의 교회들, 러시아 정교회 등 다

양한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었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LA에 있는 새들백 교회를 보면서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 넓은 땅에 아름답게 꾸며진 교회,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위해 체육관은 물론이거니와 당구대와 여러 놀이기구들, 심지어 전자오락기도 갖다 놓은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세이비어교회를 보면서는,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습

니다. 그 외에도 리디머 교회, 강변교회, 수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등 많은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연수기간 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 어렵게 느꼈던 담임목사님과 과도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며 배울 수 있었던 것 또한 귀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는 곳마다 저희를 아름답게 섬겨주셨던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사는 곳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LA에서 마지막

저녁은 서정운 전 장신대 총장님 댁을 들렸습니다. 소탈한 웃음으로 제자들을 맞아주시며 들려 주셨던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가르침으로 남았습니다.

2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으며, 주님의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또 하나의 귀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당회원들, 주님의교회 성도 한분 한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임창진 목사

사역 간증

주님 주신 사랑 전하는 기도어머니회



학원선교 기도 어머니회에서는 정신여고 학생들과 한 달에 한 번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5-6명의 학생들과 어머

니 한 분이 한 조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함께 하며 기도를 나누고 여고 시절 마지막을 대학진학을 앞두고 수능준비로 마음이 바쁜 수험생들에게 기도 어머니가 되어 주님 가까이 그저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려 노력합니다. 첫 시간에 생각했던 많은 각오와 결심이 때로는 저의 부족함으로 부끄러

울 때도 있지만 아이들과의 대화만으로도 참 많은 시간이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늘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고 한 시간 수업도 짧게만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맑고 순수합니다. 때로는 마치 제 자신도 다시 여고생이 된 듯 아이들의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들에 푹 빠져듭니다. 어쩌면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올해도 벌써 절반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시 한 번 처음의 결심을 되새기고, 늘 기도하며 공부하는 기도 어머니가 되려 합니다. 또한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기도 어머니 분들과 우리 향기로운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덕희 집사/기도어머니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기독교의 역사 17

무궁화를 뜻하는 자주색 빛

1926년 4월 25일 조선 마지막 왕 순종이 승하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애통에 잠긴다. 그 중 정신여학교 학생들의 상황을 신문은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창덕궁 전하의 승하하셨다는 본보의 호외가 서울 안에 한번 돌아 삼십만 시민은 누구나 애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는 중 시내 정신여학교 생도들은 천만 의외의 비보를 접하자 귀가하지 아니하고 모두

교실에 모여 한동안 통곡한 후 새로 지어 입은 교복(짙은 수박색 치마에 자주색 빛 저고리)을 벗어버리고 일제히 소복단장을 한 후 머리 끝에 붉은 단기까지 떼고 흰 단기로 갈아 달은 후 밤이 깊도록 기숙사에 모여 통곡하기를 마치지 아니하고(下略) “정신여고생, 素服으로 終夜痛哭” 『시대일보』 1926년 4월 27일

많은 학교들 중 정신여학교의 소식을 알리는 것은, 정신여학교 학생



순종 승하소식을 접한 정신여학교

들이 누구보다 애통해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무엇보다

이 슬픔 속에 일제의 교육령을 따르지 않아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정신여학교, 이 여학생들이 순종 승하 소식에 대해 밤이 깊도록 통곡하는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뜻한 마음을 보았을 것이다. 일제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애국정신을 보았을 것이다. 정신여학교는 민족의 자부심이었다. 순종 장례식 날을 기해 6·10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감사 편지

수용자 형제들의 힘과 위로됨

주님의교회 교우님들께,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사역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소망교도소 수용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일요일집회를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립니다.
담 안에 갇힌 수용자 형제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공감해서 바쁘신 가운데 매년 찾아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힘을 북돋아 주시고 간식으로 격려해 주셔서 수용자 형제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찬양단의 단

체찬양과 노래로 드리는 예배와 김용웅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수용자 형제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로 거듭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앞으로 주님의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더욱 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하며, 같이 오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교우님들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망교도소 교육교회계장
최용규 드림

교회단신

2015년 주님의교회 경로잔치



5월 15일, 섬김과 나눔에서 주님의교회 65세 이상 교우들과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하였다. 500여 분의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선물을 나눠드리고 주님의교회 교역자들이 합창으로 부른 어머니 은혜를 들으며 어르신들 은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도 가졌다. 호산나 무용단이 준비한 고전 무용도 보고 대중가요에 맞춰 율동도 하고 빙고 게임과 행운권 추첨을 하며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고, 준비되어진 맛있는 점심식사를 먹으며 5월의 한날을 경로잔치로 섬겼다. **함글함글**

7기 늘푸른대학 봄나들이



5월 19일 (화) 7기 늘푸른대학 봄나들이를 용인 민속촌으로 다녀왔다. 5대의 버스에 나누어 탄 151명 늘푸른대학 학생들은 마치 초등학교 소풍을 가듯이 마음은 즐겁기만 했다. 약간 흐린 날씨 속에 축축한 바람이 살짝 불며 준비해간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줄타기 외줄 공연 등을 보며 동심으로 돌아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함글함글**

청년예친사 3단계: 데이트 스쿨 오월애



청년부 데이트 스쿨 오월애 (나를 뛰어 넘는 사랑) 4기가 5월 7일부터 28일까지 'The Love Cafe'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되었다. 이번 오월애에는 매주 20여명의 청년들이 꾸준히 참여했다. '오월애'는 청년들이 청년기에 적절한 시점에 이성과의 만남이 주어졌을 때 이를 아름답게 응답하고 지혜롭고 성경적으로 상황을 직면하여 아름다운 가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돕기 위해 매년 5월에 진행하고 있다. **함글함글**

알립니다

▶ 해외비전트립 물품 후원
5/17-6/7, 학용품, 운동용품, 약품, 기금 등
이상선 집사(010-9263-4651)

▶ 어린이교육목회원 교사 모집
어와나 T&T 담당교사 / 신주찬 전도사 (010-4595-8506)
유년부 반 담당교사 / 김세민 전도사 (010-7395-0213)

아기나들이 : 2015년 5월 17일 3부 예배



권수아 아기

1.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인성이 올바른 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2. 수아로 인해 부모로써 책임을 다하고 가정의 더 화목할 수 있도록
- 아빠 권기덕, 엄마 최윤정, 2014년 12월 24일생



김서영 아기

- 선하고 진실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 아빠 김지섭, 엄마 김태은, 2014년 10월 16일생



유소은 아기

1. 소망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2. 항상 주 안에서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3.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전해지도록
- 아빠 유동훈, 엄마 최세라, 2015년 3월 4일생



장준희 아기

1.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2.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이 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3. 일평생 동안 건강의 축복,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 아빠 장동현, 엄마 권유정, 2015년 1월 12일생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да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